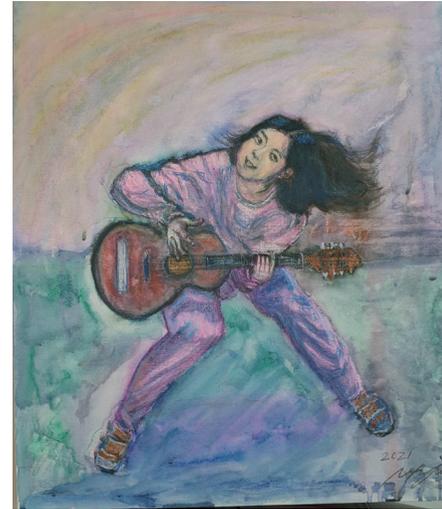


Photo | 이은경 집사(사랑-39)

매일묵상
2022. 7월호

발행인 | 차동혁
집필/편집 | 교역자실
진행 | 신앙운동팀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Tel. 02.2686.5871
www.gocheok.or.kr





주제 성구

[신명기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Let's Play]

노춘자 작가

한국미술협회 이사
한국여성작가협회 자문위원
송파미술협회 자문위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 언제나 강함을 주시고 저에게 주신 숙제를 매일매일 잘 풀어가게 해주시고 하얀 캔버스에 사랑하는 꼬마 천사들을 그리면서...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면서...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희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7월 카페 '그라티아'에는 노춘자 작가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매일 성경
매일 찬송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이름

소속
(교구-목장/부서)

목차

기도를 배우다	03
7·8월 달력	04
7월 [오늘의 말씀]	06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07
맥추감사절 바로알기	08
매일묵상, '위드유'가정예배	14, 30, 44, 58, 74
누가복음 해설	24
사도행전 해설	64
이 달의 책 추천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76
나의 매일묵상 이야기 임종호 협동만수집사 (소망-7)	78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디아코니아(6) 행복사역부-마더와이즈 ...	81
교회소식	83
예배안내	84

부록

- 가정예배 실천표
- 세례요한의 탄생을 약속했어요
- 가정예배 암송구절 카드

그라티아 갤러리 | 노춘자 작가의 [Let's Play]

기도를 배우다

하루의 노동을 위해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노동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진리를 탐구할 때
부지런함과 정직한 탐구심을 주소서.
동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하게 하소서.
주어진 과제와 책임을 수행할 때
즐거움과 용기와 평정을 주소서.

김영봉 엮음, [사림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IVP 2004, 408.



라인홀드 니버
(Karl Paul Reihold Niebuhr)
(1892-1971 미국의 신학자)

개신교 신학자이며 기독교 윤리학자이다. 기독교 신앙을 현실적인 현대 정치와 외교에 접목시킨 기독교 현실주의로 유명하다. 에덴 신학교와 예일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디트로이트에서 13년 동안 목회활동을 했다.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사역했으며, 그의 신학은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를 비롯하여 후대의 많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7

2022
교육의 달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 6:7)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월삭새벽기도회	2
3 • 맥추감사절	4	5	6 • M-12/L-12 상반기 종강 및 자율모임 시작	7 • 소서	8	9
10	11	12	13	14	15	16 • 초복
17 • 교회학교 여름사역 파송예배 • 제헌절	18	19	20	21	22	23 • 대서
24 31	25	26 • 중복	27	28	29	30

TO DO LIS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2022
훈련의 달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시 105:19)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 청년공동체 여름 수련회	5 • 청년공동체 여름 수련회	6 • 청년공동체 여름 수련회
7 • 입추	8	9	10	11	12	13
14	15 • 광복절 • 말복	16	17	18	19	20
21 •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예배	22	23 • 처서	24	25	26	27
28	29	30	31 • M-12/L-12 하반기 개강			

TO DO LIS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월 [오늘의 말씀]

1일	역대하 25-26장	16일	누가복음 10-11장
2일	역대하 27-28장	17일	주 일
3일	주 일	18일	누가복음 12장
4일	역대하 29-30장	19일	누가복음 13-14장
5일	역대하 31-32장	20일	누가복음 15-16장
6일	역대하 33-34장	21일	누가복음 17-18장
7일	역대하 35-36장	22일	누가복음 19-20장
8일	누가복음 1장	23일	누가복음 21-22장
9일	누가복음 2-3장	24일	주 일
10일	주 일	25일	누가복음 23장
11일	누가복음 4-5장	26일	누가복음 24장
12일	누가복음 6장	27일	사도행전 1-2장
13일	누가복음 7장	28일	사도행전 3-4장
14일	누가복음 8장	29일	사도행전 5-6장
15일	누가복음 9장	30일	사도행전 7장
		31일	주 일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1. '드라마바이블'이란?

드라마바이블은 오디오성경으로 100여 명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급 연예인과 국내 최고 작곡가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인수 장로, 다투와 모세는 이재룡과 장광 배우를 비롯하여 권오중(요엘), 양준모(이사야), 엄지원(에스더·룻), 예지원(마르다), 우희진(하와), 박시은(마리아), 최윤영(마리아) 등 크리스천 배우들도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윤유선과 아나운서 최윤영, CCM 가수 송정미 등이 시편을 낭독하는 등 총 100여 명의 크리스천 성우, 배우가 기꺼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배경음악도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드라마, 영화음악 감독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함을 오디오로 접할 수 있습니다.



2. 드라마바이블 활용법

'드라마바이블'을 활용하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성경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와 [고척교회 앱]에서 [매일묵상-드라마바이블]을 클릭하면, ① 매일묵상 읽기본문에 따라서 드라마바이블을 들을 수 있고, ② 2022년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읽기표와 '드라마바이블'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 > www.gocheok.or.kr

고척교회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고척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실행

1. 구약의 3대절기에 대한 이해

구약성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절기는 내용상으로 모두 감사절에 속합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초실절로 연속되는데, 다시말해 무교절이 끝나는 안식일 다음날(주일)이 초실절입니다. 오늘날 유월절의 의미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지며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하며 지키는 절기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2. 구약의 맥추절과 한국교회의 맥추감사절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며 칠칠절, 오순절과 같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넘어오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이후로 교회는 이 날에 성령강림의 의미를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활주일 이후 50일이 되는 7번째 주일인 오순절을 성령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 구약의 맥추절은 한국교회의 맥추감사절과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지켜온 맥추감사절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통인 것처럼 맥추감사절 또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시기의 농경 사회에서 만들어진 전반기 농산물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선교 초기 한국의 농민들 대부분은 농경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봄철의 주된 농산물은 보리였는데, 주로 6월 초순 혹은 중순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끝낼 즈음 시기인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며 소출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맥추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을철 주된 농산물인 쌀은 주로 10월에 수확을 했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벼 수확의 소출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시작될 당시 농경사회의 주된 소산물이 보리와 벼였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처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절기로, 교회 전통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3. 현대사회에서 맥추감사절의 의미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장생활을 통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을 통한 사업소득 등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소득의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주로 월 단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맥추감사절이 보리라는 수확물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라는 의미에서 절기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현재 농촌 지역 외에는 이러한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 첫째 주일, 1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에 지키게 되는 맥추감사절은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날로 지킬 수 있고, 11월 셋째 주일, 1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점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1년 동안 베푸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농경사회였던 시절 1년 농사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추수감사절을 통해 감사를 드렸고, 급격한 도시화를 동일하게 겪고난 이후에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농경 사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수감사절을 없애지 않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난 6개월, 반 년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미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2022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36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25-26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25-26장

25장에서 유다 왕이 된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이어서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용사들을 고용해서 에돔을 치러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이스라엘 용사들을 돌려보낸 후에 유다 군사만으로 전쟁을 하여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마샤가 세일 사람 1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둔 후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시지만 아마샤는 듣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진 아마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만 패하고, 반역한 무리에 의해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26장은 아마샤의 아들 웃시야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던 전반부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지은 후반부로 나뉩니다. 16세에 왕이 된 웃시야는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웃시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져서 주변의 민족을 굴복시키게 되고, 그의 이름은 애굽의 변방까지 전해집니다. 웃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웃시야에게 복을 내리셔서 유다 왕국이 남북으로 갈려진 이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진 웃시야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의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 때 막아서는 제사장들에게 웃시야가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왕이 됩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26:16-23

처음에 신실한 삶을 살았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스스로 교만에 빠져 죄의 길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벌써 몇 대 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만의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에돔과 전투를 할 때 용병을 고용하려 한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용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 웃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때 형통함을 누리고, 교만 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살게 하소서.
2.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길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소서.
3. 동성애, 퇴폐문화 등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숨겨진 죄악들이 제도와 법규로 허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아름다운 문화로 덮어주소서.

여호와 앞에서 강하여졌더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9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27-28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27-28장

27장에서 웃시야의 아들 요담은 그리 탁월하지 않은 평범한 자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서, 점점 강성해지는 가운데 삶을 마감합니다. 그는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많은 성읍과 진영과 망대를 건축합니다. 또 암몬 자손을 이김으로 써 유다에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28장에서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하자 아하스가 앗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앗수르 역시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서 많은 재물을 취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이러한 곤고한 상황에서도 더욱 악한 일을 행합니다. 성전문을 닫고 성전 기구를 파괴하고 이방 신들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27:2-6

요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교만하여 결국 나병의 징계를 받은 아버지 웃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공동통치를 하였습니다. 유다의 이전 왕들이 크게 강성하였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로 비참하게 몰락한 것과 달리, 요담은 평범하게 시작했으나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가 죽을 때까지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 요담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삶을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과 신앙 그래프는 이상향 중입니까? 과거에는 좋았으나 현재는 하락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되시네”, “악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찬양을 검색해서 들으면서 주님 나라 갈때까지 계속해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길 고백합니다.

*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 더 범죄를 하여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28:22-23).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곤고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곤고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1. 죄를 지어 곤고할 때 바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2. 소년부 학생들이 사춘기 고민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큰 꿈을 품게 하소서.
3. 창조세계 질서 보존과 유지를 위해 모든 나라들이 노력하게 하시고,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도 환경보호를 생활속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찬 양

찬송가 246장

말 씬

출애굽기 40:34-38

나 누 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하자 구름이 그 회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막 위에 임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성된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뻐하시며 그 위에 임재 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질 문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은 어디일까요?

기 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고 꼭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암 송 절

출애굽기 40: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진심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618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29-30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29-30장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것들을 모두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성전 정화 작업은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 8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된 제사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30:13-20

당시 유월절 행사에 참석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제의적으로 깨끗하지 못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준수 명령을 따라 급히 예루살렘에 오기는 하였지만 시일이 촉박하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못하여 유월절 규례를 어기게 되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결심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들의 진심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갑시다.

* 예배의 형식과 내용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심이 예배 형식에 녹아들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진심을 잘 담아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실제로 표현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심을 내 모든 삶과 행동에 담아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중등부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중등부 되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참된 지도력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69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31-32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31-32장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성전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정비합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정비하고 십일조 제도와 성물 분배 제도 등을 재정비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개혁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부적인 개혁이 있는 후에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남유다는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도 히스기야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앗수르의 군대를 멸하여 주셨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32:20-23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항복을 요구하며 열방의 신들이 앗수르 왕을 이기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앗수르 왕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헐박하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고 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앗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 혼자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기도친구와 함께 같은 기도제목으로 기도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2.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3.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반응하면 살아납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99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33-34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33-34장

므낫세는 12세에 왕위에 올라 55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 서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됩니다. 어둠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밝아오듯이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 이후에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으며 산당과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34:29-33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들은 요시야 왕은 즉시 성전에 올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와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선포한 후에 모든 백성들도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못들은 척하고 반응하지 않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듣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요시야는 언약의 말씀을 들은 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꼭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받은 말씀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이 세대별-계층별-지역별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88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35-36장

오늘의 말씀 | 대하 35-36장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를 맡겼습니다. 이때 요시야와 방백들은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의 유월절 제물도 내어주었습니다. 요시야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다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 이후 등장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마저 패망하게 되었고, 포로 생활 70년 후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 대하 36:11-23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시야 이후 마지막 왕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왕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 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36:12). 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망할 행동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국가는 망하였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고 고레스 왕에 의해 예루살렘 재건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민족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읍시다.

*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에도 희망이 있습니까? 그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참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갑시다.

오늘의 기도

1.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방의 소망이 되시며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2. 은빛시니어학교를 섬기시는 귀한 손길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르신들의 노후가 복되게 하소서.
3. 분열된 조국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1.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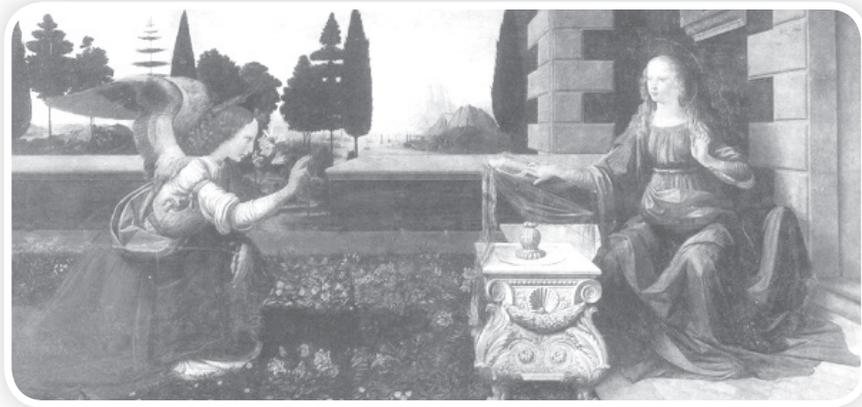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골4:14, 몬1:24, 딤후4:11)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문(눅1:1-4)을 통해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목격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마지막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누가복음은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마리아와 마르다,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이야기 등 익숙하고도 유명한 이야기들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기술하려는 저자 누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록목적

누가가 저술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전체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큼니다. 이 두 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확장성을 강조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 제국의 심장 부까지 진출함을 서술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3. 구조와 특징

초점	서론 : 예수님의 출현과 사역		설교	죽음과 부활
구분	1:1-4:13	4:14-9:50	9:51-19:27	19:28-24:53
	공생애 준비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마지막 일주일
주제	소외된 자를 찾으심		소외된 자를 구원하심	

- 1) 예루살렘에 지리적인 초점을 맞춥니다.
- 2) 예배와 기도를 강조합니다.
-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강조됩니다.
- 4) 성령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 5)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간략한 헌정사로 시작하는 누가복음은 1-2장의 긴 서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신학적 내용들과 주제들이 여러 찬가의 형식으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성령이 강조되고 있으며 누가복음의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세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마무리 됩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61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오늘의 말씀 | 눅 1장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간략한 헌정사를 서언으로 누가복음은 시작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은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합니다.

가브리엘이 예언대로 세례요한은 출생하였고 그 부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묵상할 본문 | 눅 1:5-17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겠지만 사가랴는 주어진 직무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인물, 세례 요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적은 없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운한 적은 없었을까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응답을 받은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어와나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소서.
3.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함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 * 오늘의 찬송: 찬송가 85장
-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오늘의 말씀 I 녹 2-3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출생 이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신 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예식을 치르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12세 예수님의 유월절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세례요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상향식 족보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하여 거슬러 올라가 다윗과 아브라함을 거쳐 최초의 인간 아담 다음에 하나님에게 까지 이르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I 녹 2:8-14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세상에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평화와 안녕을 선물해 줄 구세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의 로마황제를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줄 구주로 생각하고 추앙하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힘과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려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서는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나에게 기쁜 소식이 남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전할 복음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1. 구주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 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하소서.
2. 교회학교전도대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3.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소서.

큰 성 바벨론의 패망

찬 양

찬송가 336장

말 씬

요한계시록 18:21-24

나누기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보여도 결국 최종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멸망당할 바벨론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질 문

하나님은 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나요?

악한 사람이 더 잘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기 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여도 모든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우리의 마음이나 시간을 빼앗으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임이나 일은 없는지 가족들과 함께 점검해 보세요.

암 송 구 절

요한계시록 18:21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59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4-5장

오늘의 말씀 | 눅 4-5장

4장에서 주님은 사탄으로부터 세 번에 걸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적 투쟁의 원리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즉 사탄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에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5장은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목도한 제자들이 생업을 청산하고 곧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며 따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 본질을 되새기게 됩니다. 한편 주님의 나병과 중풍병 치유 기사는 주님의 사죄권과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근원적 질병,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묵상할 본문 | 눅 5:12-16

예수님은 나병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율법(레13장)에서는 나병환자를 부정하게 여겨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환자와 접촉하면 그와 같이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을 죄로 인한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나 정결법상으로 부정한 나병환자를 직접 손을 대시며 치유하셨다는 것은 마지 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넘어 선 죄의 속성과도 연관된 것이기에 본문의 표현 가운데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 나병환자의 영적 질병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는 의미까지 내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예수님께 기도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혹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2. 식당봉사팀을 위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다시 시작되는 식당봉사 사역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역이 되게 하소서.
3.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소서. 이 지역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소서.

누가 참된 성도인가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12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오늘의 말씀 | 눅 6장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거리 중의 하나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부패한 종교인은 안식일 제도를 하나의 계율로만 파악하여 인간다운 삶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반면 주님은 인간의 생명과 행복이 안식일 규례의 본뜻임을 행동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20-49절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 병행구절입니다.

묵상할 본문 | 눅 6:46-49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마지막 비유임과 동시에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큰물이 나서 탁류가 와서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큰 물결로 탁류가 몰려와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집처럼 믿음의 삶이 순종으로 이어지면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여 주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참된 성도입니까? '주여 주여' 말로만 외치며 행함 없는 자들에게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탁류에 쓸려 쉽게 무너지는 믿음의 모습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순종하여 행함으로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는 참된 성도의 삶을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은 채 걱정과 근심으로만 가득하게 보낸 날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 개인의 삶이 그렇듯이 우리의 가정도 반석 위에 주추가 놓여 져야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주추가 놓인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1.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삶이 반석 위에 주추가 놓이게 하여 주소서.
2. 데코팀과 조경팀을 위하여.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코팀과 조경팀에 더욱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소서.
3. 고척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36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오늘의 말씀 | 눅 7장

백부장의 하인 치료 기사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에서는 주님의 ‘은혜로우신 방문’이 부각됩니다. 주님의 오심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한편, ‘향유 사건’에서 시몬은 자기 외에 도취된 자를, 여인은 용서받은 죄인을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눅 7:36-50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크고 많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많은 죄를 사함 받은 향유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의 마음과는 너무도 비교되는 절실한 마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48)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한없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을 얻은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그 기쁨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깨끗해 졌음을 믿으십니까?

*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다가가게 됨을 믿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오늘의 기도

1.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이 주어졌음을 믿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2. 상례팀과 새하늘찬양대를 위하여. 교우들의 아픔과 애통함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품게 하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3.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가 누구시기에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47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오늘의 말씀 | 눅 8장

8장은 내용상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먼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교훈을 상당수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많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인간의 절망적인 정황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은 메시아의 초자연적 권능을 드러내 주는 사건입니다.

묵상할 본문 | 눅 8:22-25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광풍이 일어나 배가 곧 잠기려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주여 주여’ 외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태연한 모습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해진 호수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어쩌면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그들이 한 질문에 대답이 있습니다. 바람과 물, 모든 창조물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절망과 두려움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들도 말씀 한 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신뢰를 통한 믿음은 우리를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풍랑과 같은 고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묵상하고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2. 문화스포츠투부를 위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건강한 육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스포츠투부의 사역에 활력과 열정이 넘쳐나게 하소서.
3. 지역의 소외된 자들이 어려운 형편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손길들을 통하여 좋은 소식들로 가득한 지역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이라면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0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오늘의 말씀 | 눅 9장

9장에서는 막바지에 접어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과의 협동 사역을 펼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전개될 복음 사역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과 변화산 사건, 축귀 사건 등을 통해 또 한 번 메시아적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묵상할 본문 | 눅 9:37-43

본문 말씀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 일을 능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강한 탄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원어에는 ‘오!’라는 의미의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악한 자들에 대하여 탄식하며 내뱉는 비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에서 왜 자신들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축귀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시도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해결 방법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서게 될 때에 유력한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을 먼저 떠올리며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어려운 시련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력한 자들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 믿음의 기도는 가장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지금 나의 앞에 당면해 있는 어려움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 기도에 있음을 믿고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2. 방송팀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 시간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역의 시간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3.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0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11장

오늘의 말씀 | 눅 10-11장

10장에서 70인의 전도대를 세우신 일은 이제 사도들만이 아닌 다른 제자들까지 복음 전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점차로 확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 영접 기사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전자는 참된 이웃 사랑의 본질을, 후자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견지해야 할 태도에 대해 교훈해 줍니다.

11장에서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기사는 기도의 원리,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끈기 있는 간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자는 본장에서 바알세불 논쟁을 유대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기사 직전에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유대인의 배척이 곧 그들의 불신앙과 외식의 근원임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묵상할 본문 | 눅 10:25-37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핵심을 상기시키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참된 사랑의 실천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타내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역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 사랑을 통하여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요1서 4:20)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마지못해 하고 있는 사역은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위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사역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전산팀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의 자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산팀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위기 속에 부르는 찬양

찬 양

찬송가 445장

말 씬

시편 63:1-11

나 누 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헤세드, *loved*)에 근거하여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도움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를 통해 주의 손이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질 문

우리의 찬양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그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나요?

기 도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위기 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손을 들고 찬양해 보세요.

암 송 구 절

시편 63: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시대를 앞서가는 그리스도인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90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오늘의 말씀 | 눅 12장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헛되고 허탄한 신화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항상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과 시대를 분간하며 제자 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묵상할 본문 | 눅 12:54-59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에 대해 준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분간하며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만 신경 쓰며 스스로를 사리분별과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졌다고 자만한다면 정작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나는 세상 이치와 사리분별에 밝은 안목을 가졌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유익이 된 점과 해가 된 점을 나누어 봅시다.

* 영적인 분별력으로 시대를 분간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소서.
2. 미디어홍보팀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팀이 되게 하소서.
3. 여름사역을 진행하는 각 부서의 일정과 사역을 보살펴 주시고 다음세대가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88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3-14장

오늘의 말씀 | 눅 13-14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시고 회당장이 이를 보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외식을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어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도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 매여 있고 대접받기만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줍니다.

묵상할 본문 | 눅 14:1-6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엿보며 그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비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 옳지 않으나 라고 되물으십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가 있는지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에 믿지 않는 이들과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우리는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등 어떤 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1. 다변화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소서.
2. 새물결팀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데 선한도구로 쓰임 받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자유를 수호한 이들을 본받아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국민이 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18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16장

오늘의 말씀 | 눅 15-16장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과 믿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16장은 재물에 대한 견해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부자와 거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십니다.

묵상할 본문 | 눅 16:14-18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이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웃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중요시하고 의로운 척하나 결국에는 돈을 원하고 못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칭송받는 것을 중요시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척을 하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가를 살펴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가족과 하나님보다 더욱 중요시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 하루 중에 자신이 생각하고 투자하는 시간에 대하여 순위를 매겨봅시다.

* 경제력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지금 시대에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니까?

오늘의 기도

1.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소서.
2. 선교부의 사역과 재정을 도와주시고 선교헌금 작성자들이 매월 선교헌금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3. 남과 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주셔서 이념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9장
-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7-18장

오늘의 말씀 | 눅 17-18장

17장과 18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용서와 화해,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세 있는 자들이 대접 받는 나라가 아니라 과부와 나그네, 어린아이들이 세움을 받고 먼저가 되는 나라임을 말씀하십니다.

묵상할 본문 | 눅 18:18-30

부자인 어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묻습니다. 부자 관리는 선하게 살아가며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걱정을 하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적인 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필요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풍요로움이요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내게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노력한 일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루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기도

1.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2. 선교사님들을 성령충만케 하시고 선교현장의 기도제목들에 응답해주소서.
3.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주시는 소망과 능력으로 위로를 얻고 자신들의 비전을 개척하며 힘 있게 살게 하소서.

충성된 종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4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20장

오늘의 말씀 | 눅 19-20장

예수님께서서는 삭개오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신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성전에 들어가 시고 장사하는 자들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케 하십니다. 20장에서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자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묵상할 본문 | 눅 19:11-27

본문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기 전 종 열 명을 불러 한 므나씩을 나누어 주며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귀인은 예수님으로 장사의 기한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 어떤 이는 엄청난 므나를 남겼을지도 모르고 어떤 이는 오히려 가지고 있던 므나도 소진하여 한 개도 없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해서 많고 적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는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본문에서의 악한 종은 가지고 있던 것까지 주인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이 악한 종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 열심히 하였지만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때를 떠올려본다면 여전히 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의 기도

1. 모양만 그럴듯한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2.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며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김이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새가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3. 지역의 이기주의와 갈등을 벗어나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53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1-22장

오늘의 말씀 | 눅 21-22장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성전 헌금으로 두 렵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의 제자 된 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과 예루살렘의 환난에 대하여 예언하시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22장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됩니다. 유다가 배반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붙잡혀 공회 앞에 서게 되십니다.

묵상할 본문 | 눅 22:24-30

제자들이 누가 크냐며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즉 서로 서열문제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며 자신을 일러 세상을 섬기는 자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스스로를 낮추며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습처럼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 스스로를 낮추며 연약하고 궁핍한 자들과 함께 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노력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빛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뚝 서기를 힘쓰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주님을 따르며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도 감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세상 가운데 재물과 지위를 얻기 위해 힘쓰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전도부 되게 하소서.
3. 다음 주부터 많은 이들이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오고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나 주님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찬 양

찬송가 197장

말 씬

고린도전서 14:1-12

나 누 기

성경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소개됩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사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간절히 사모할 뿐입니다.

질 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기 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받은 은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돌려가며 서로의 은사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암 송 구 절

고린도전서 14:12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구원받은 강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05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오늘의 말씀 | 눅 23장

누가복음 23장은 재판 후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헤롯, 빌라도 그리고 민중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쏟아지는 비방과 핍박,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묵상할 본문 | 눅 23:39-43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그 나라에 거하게 되는 백성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거부하였던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한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구원이 주어집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2. 재정부가 맡겨진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팀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소서.
3.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장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오늘의 말씀 | 눅 24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지만,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었고,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났고, 열한 제자에게도 나타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묵상할 본문 | 눅 24:36-43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 언제 그들도 잡히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믿기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 제자들은 두려움과 떨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고, 여전히 놀랍게 여기는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며, 또한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굳건한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들의 안위와 다가올 일들에 대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요즘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며,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평강이 임하였던 일이 있으면 기록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두려움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주시며,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차량부 봉사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헌신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소서.
3. 이 땅 가운데 경제 위기를 극복시켜 주시고,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사회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1. 저자와 연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인물인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누가의 직업인 의사직을 반영하는 전문 용어들과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 독특한 문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는 누가복음이 기록된 직후, 대략 A.D. 90-10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2. 목적과 배경

사도행전의 저술목적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로마까지 퍼져 나간 교회의 발전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파한 과정을 복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초대 교회의 역사를 전달해 주는 귀중한 책일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 내용과 구조

1)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설립과 복음 증거(1:1-7:60)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의 사역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신 장면으로 막을 엽니다.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이 일어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 등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여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태동한 과정이 소개됩니다. 그 후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급격히 신장하였고, 일곱 집사 선정 등 조직을 정비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2.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복음 전파(8:1-12:25)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타인 지경을 넘어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예

루살렘 교회에 밀어닥친 박해의 광풍은 결국 사도들 외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 확장의 큰 긍정적 기능을 하였습니다.

3. 소아시아와 유럽, 바울의 로마 도착(13:1-28:31)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선교 기지로 하여 그야말로 복음이 땅 끝을 향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전체의 진정한 주역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본다면 이전의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복음 전파 사역의 주역으로 등장했다면, 13장 이후로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5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오늘의 말씀 | 행 1-2장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에 써 보냈던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 막을 열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건과 함께 예수님을 판 유다를 대신하여 맛디아가 제자로 세워진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후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담대히 주를 전파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로 삼천 명이나 회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행 1:12-26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원에서 돌아와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힘썼습니다. 이 때 베드로가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맛디아가 선출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대단하여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뽑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직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맛디아처럼 하나님의 합한 자로 선택되어 거룩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요, 귀중한 부르심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는 믿음생활이 되게 하소서.
2. 총무부의 모든 팀원들이 헌신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즐거운 사역이 되게 하소서.
3.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 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82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4장

오늘의 말씀 | 행 3-4장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걸지 못한 앉은뱅이를 만났고, 그를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치유의 역사가 자산들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으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역을 시기하였던 당시 종교자들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시기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묵상할 본문 | 행 4:1-12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이 삼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역을 시기한 자들이 있었는데, 당시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성전 미문의 치유 사건을 가지고 심문하자, 베드로는 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치유 사건의 근원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으며,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권위와 힘이 그들을 좌지우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 혹은 환경은 두려움과 신뢰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시기와 핍박이 존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의 삶을 살다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감금된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고, 구원의 이름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예배부원이 먼저 예배의 은혜를 받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도우며 섬기게 하소서.
3. 고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주하는 삶의 위기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리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25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5-6장

오늘의 말씀 | 행 5-6장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돈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더욱 힘있게 전개되었고, 오히려 핍박과 투옥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집사 제도 등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복음전파를 하였던 스테반이 공회에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묵상할 본문 | 행 5:1-11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이 사탄에게 유혹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지만, 그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만 베드로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돈이 땅 값의 전부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안에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들이 더욱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드릴 때에도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적 상태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에 눈이 멀면 우리의 영적인 순결성은 변질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욕망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사람의 인정과 물질을 추구하던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까? 있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있는 신앙의 기준을 세워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소서.
3.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해결해야 할 이 민족의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소서.

형식적인 종교행위를 버리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52장

*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오늘의 말씀 | 행 7장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죽음 직전에 기독교의 핵심을 설교하였는데,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강력히 비판하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가 되심을 밝혔습니다.

묵상할 본문 | 행 7:46-50

공회 앞에 서게 된 스테반은 마지막으로 성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다고 설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였기에,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단지 절기를 지키거나 종교 행위를 할 때만 만나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스테반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갇혀있지 말라는 의도로 설교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음과 같지는 않습니까? 진실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향한 간절함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기도하지만 확신 없는 형식적인 기도생활이 계속됩니다. 진실한 중심이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임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스테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생활의 모습이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기도

1. 형식적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진실함과 전심으로 드리는 참된 신앙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2. 시온 찬양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소서.
3.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보살핌으로 함께 하소서.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찬 양

찬송가 308장

말 씬

욥기 40:6-9

나누기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던 욥도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의로움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질 문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욥에게 하신 질문을 나에게도 하신다면 무엇이라 답해야 할까요?

기 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하나님께만 모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암 송 구 절

욥기 40:9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 제목
- 본문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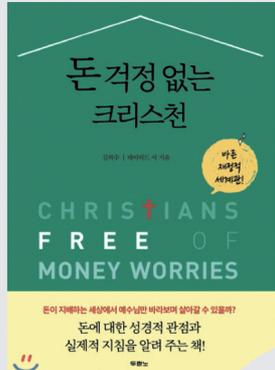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김의수, 데이비드 서 저 / 두란노(2017)



2003년 “깨끗한 부자”의 저자 김동호 목사님과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의 저자 김영봉 목사님의 공개 토론이후, 지난 20년간 바른 물질관에 대한 논의는 작게는 성도 개인의 내면에서 크게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 공동체 내에서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 10년 전에는 신학적인 검증이 채 완비되지 않은 모 선교단체 간사님의 재정 강의파일이 교회마다 유행될 정도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현재 돈을 잘 사용하는지’, ‘잘 투자하는지’, ‘이게 성경적인지’에 대한 관심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물질관 투자관이 성경적인지 한번은 정리를 해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서는 이런 기대를 충족 시켜주는 기본적인 입문서 역할을 해줍니다. 크리스천 재무상담가 센터장인 저자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묻고 자신의 재무활동과 자녀 신앙교육을 말씀의 기준으로 따르길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적용한 내용들과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재무를 관리하면서 체득한 내용들로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며 성경적 물질관을 세우도록 도와줍니다. 다년간 강사로 섬기는 두란노 재정학교와 신혼부부학교를 통한 폭넓은 임상경험과 신학자들의 검증을 받으면서 내용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져서 마침내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본서는 용돈을 받아야 하는 학생부터, 기독교 청년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한참 자녀들을 키울 때, 어느 정도 물질을 갖게 되었을 때, 은퇴한 이후의 시점 등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나의 현재 물질관 (재정사용과 투자)을 점검하고 바른 방향을 충실히 제시해 줍니다. ”

● <목차>- 붉은 글씨만 읽어보시면 책 전체의 흐름이 보입니다.

1장 날마다 돈 걱정하는 크리스천

1. 부자는 축복, 가난하면 저주?! (박 장로가 교회를 떠난 이유 / 헌금을 통한 베행 / 헌금은 과연 축복 티켓인가? / 성부가 되고 싶은 진짜 마음 / 번영 신앙과 기복 신앙이 장악한 교회 / 현대판 다윗의 싸움) 2. 성경적인 남편 vs. 세속적인 아내 (빛 없이, 신용카드 없이 어떻게 살아요? / 고난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된 아내 / 내 삶의 굴곡과 위기 / 돈으로 인한 아내와의 갈등)

2장 맘몬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1. 골리앗 맘몬 vs. 다윗 크리스천 (돈 앞에서 무력해 보이는 하나님 / 현실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 교회 안에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2.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 (축복의 여왕의 속사정 /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자라게 해 주세요” /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큰 딸) 3. 공동체에 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의미 / 장애아 딸을 온몸으로 환영해 준 교회 공동체 / 교회 공동체의 나눔, 지목헌금 / 형제보다 친한 공동체 사랑 /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 공동체에서 나눔이란 / 나의 작은 공동체)

3장 돈과 믿음의 치열한 영적 전투

1. 자녀교육과 돈_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으라 (이생의 자랑의 최고봉, 자녀 / 자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 자녀가 내 것인가? / 무리한 명문 추구에 주눅 든 자녀들 / 코넬대학 합격의 노하우, 교회와 천사들(?) / 난감했던 딸의 수학 성적 / 애견관리사에서 디자이너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딸 / 다섯 살부터 시작되는 늦둥이 교육 고민 /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두려움의 차이 / 게임의 차원이 바뀌고 있는데 스펙만 쌓으면 뭐하나 /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2. 결혼과 돈_자녀 결혼, 경계선이 필요하다 (돈도 없으면서 결혼하다? / 엄마 믿고 무조건 결혼해 / 최고의 결혼인 줄 알았는데... / 자녀 결혼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믿음 / 크리스천에게 결혼이란 무엇인가) 3. 내집마련과 돈_내 집은 하우스인가, 홈인가 (집을 사야 하는 이유 / 강남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 / 내 집은 하우스인가, 홈인가) 4. 노후와 돈_크리스천의 노후, 세상과 달라야 한다 (고령화 사회와 노후 파산 / 정말 노후에 돈 없으면 죽을까? / 노후를 아름답게 하는 것)

4장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을 위한 재무 원칙

1. 자녀 교육_큰 그림을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합의하라 (명품 추구와 과소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 재정 교육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 게임 중독이었던 목사님 아들, 그들의 화해 방법 / 사교육비, 남편과 아내가 합의해서 결정한다 / 자녀 교육은 장기전이다 /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동시에 해야 한다 / 부부가 꼭 명심해야 할 교육 지침) 2. 결혼_매월 빚지지 않는 재무 시스템을 구축하라 (결혼식부터 부모가 아닌 당사자가 주인공 돼야 / 반식 위에 세운 가정 천국 / 돈 걱정 없는 결혼 재무 관리) 3. 내집마련_기도와 함께 실질적인 준비를 하라 (내 집의 소유권 내려놓기 / 집은 언제 사야 하나? / 국가 주택 정책을 적극 활용하라) 4. 노후_인생의 전 기간을 통해 완성하라 (남편이 오래 일하도록 돕기 / 노후 준비는 결코 돈으로 되지 않는다 / 인생의 전 기간을 통해 완성되는 노후 준비 /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전략 / 노후 걱정 대신 5층 연금 자원 만들기 /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5. 원칙을 세우면 돈 걱정 없다 (원칙 1. 내 삶의 주인을 정한다 / 원칙 2. 예산 세우기와 자족으로 빚지지 않는다 / 원칙 3. 이웃 사랑 통장으로 저축하고 나눈다 / 원칙 4.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다) 6. 실천! 돈 걱정 없는 재무 시스템 (매월 꼬들리는 우리들 / 단기부채부터 갚는다 / 신용카드를 없앤다 / 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의 매일묵상 이야기

4~6월 매일묵상으로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의 실제적인 내용을 특별 기고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 임종호 협동안수집사(소망-7)

모든 같은 것을 보면서도 생각과 느낌, 반응이 다른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 필사를 십년 넘게 꾸준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큰 배움이 되었고 개인 생활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읽으면서 동일한 말씀에 대한 느낌과 깨달음도 변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16)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상징인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것이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더불어 점점 더 경쟁과 다툼이

치열해지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절실하게 이해되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있어서 분명히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때에 어느 것을 사용하는냐 라는 것이다.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쓰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기 위해 사용하는냐에 따라 그 열매는 너무나 많이 다르게 된다. 단기적으로 짧은 의미에서는 좁은 이기심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가 같이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불이 무서워 보이지만 불이 물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신앙생활도 오래하다 보면 믿음이 깊어지고 진실해 진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또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 때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 도를 넘으면서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12)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개인적인 인간성을 떠나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대화에서 질 수 밖에 없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한다. 우리 일반생활에서 반복되는 "잘 될 때 잘 해라"는 말이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과거에 기록된 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의 나에게 일어나고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움이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한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24시간 동행하는 친구이자, 쓴 소리를 해 주는 멘토로서 함께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기도도 교회에서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하루하루, 시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마더와이즈 “자유” 과정을 마치며

• 마더와이즈 팀장 김미동 권사(섬김-7)

지난달 ‘위드유 가정예배’ 실천표 소감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예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 김하연(소년부), 김태연(고등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위로해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김용갑, 이숙진 집사 (사랑-36)

시험 기간에도 가정예배를 통해 위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배수환 (고등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배수호 (고등부)

* 그 외에 실천표를 제출하신 분들입니다.

신오섭 집사 (사랑-29), 정애희 권사 (사랑-39)

최상선 집사 (섬김-14), 배수형 (유년부)

신창섭 집사, 강희영 권사 (사랑-8)

* 모든 성도가 함께 가정예배를 실천합니다.
1인 가족이나 부부도 [매일묵상]의 ‘위드유 가정예배’를 통해
예배드리고 실천표를 꼭 제출해 주세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쳐
희망과 용기와 활력이 필요하십니까?
자녀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마더와이즈가 있습니다 !!!!

마더와이즈의 목적은 이 땅의 어머니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마더와이즈에서 다루는 내용은

1. **지혜** : 모든 관계를 성경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지혜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돕는 과정
2. **회복** :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삶의 상처로 낮아진 자존감과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3. **자유** : 스스로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보고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손잡고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로 하나가 되며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멘토링하고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토의를 통해 사랑으로 품어 주고 격려합니다.

이번 과정은 “자유”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 아닌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어 직접 만나 현장에서 예배하고 나눔을 하진 못했지만, 화상으로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과 조장들을 통해 조별 나눔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9주 동안 한 분의 낙오자 없이 모두 수료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대면이 아니라 더 힘들었을 목사님과 팀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유” 과정을 통해 어린이의 영적 성장은 부모의 역할에 달려 있으며 자녀들이 자라는 결정적인 시기(어릴수록 좋다)에 영양공급(성경 말씀)이 꼭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자녀를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 양육에 있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어머니들께 고교회 마더와이즈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가을에 시작되는 마더와이즈를 기대하면서...

교회소식

7월

교회

- 월삭새벽기도회 | 1일(금)
- 맥추감사절 | 3일(주일)
- M-12 / L-12 상반기 종강 및 자유포럼 시작 | 6일(수)
- 교회학교 여름사역 파송예배 | 17일(주일)

교회학교

-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 7월 23(토) - 24(주일)
-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 7월 9일(토)-10일(주일)
-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 7월 23일(토)-24일(주일)
-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 7월 23(토)-24일(주일)
-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 7월 16(토)-17일(주일)
- 중등부 여름수련회 | 7월 28일(목)-30일(토)
- 고등부 여름수련회 | 7월 28일(목)-30일(토)

예배시간 안내

GO CHEOK . PRES BY TER IAN . CH UR CH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은혜대예배당
	3부	오전	11:00	은혜대예배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6:00	은혜대예배당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0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40	세미나실(본관5층)
상담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e-메일 상담으로 운영합니다. gocheok1004@gmail.com 로 메일 보내주세요.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 1, 2부(초1-3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지층	
소년 1, 2부(초4-6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본관B1층)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청년공동체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본관B1층)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위드유' 가정예배 세우기 프로젝트

- 가정예배를 세우기 위해 격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가정예배 실천표'를 체크하신 후 절취하여 수거함에 제출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달 첫째 주일에 추첨하여 3가정에 [사랑나눔 간식 쿠폰]을 드립니다.

7월 가정예배 실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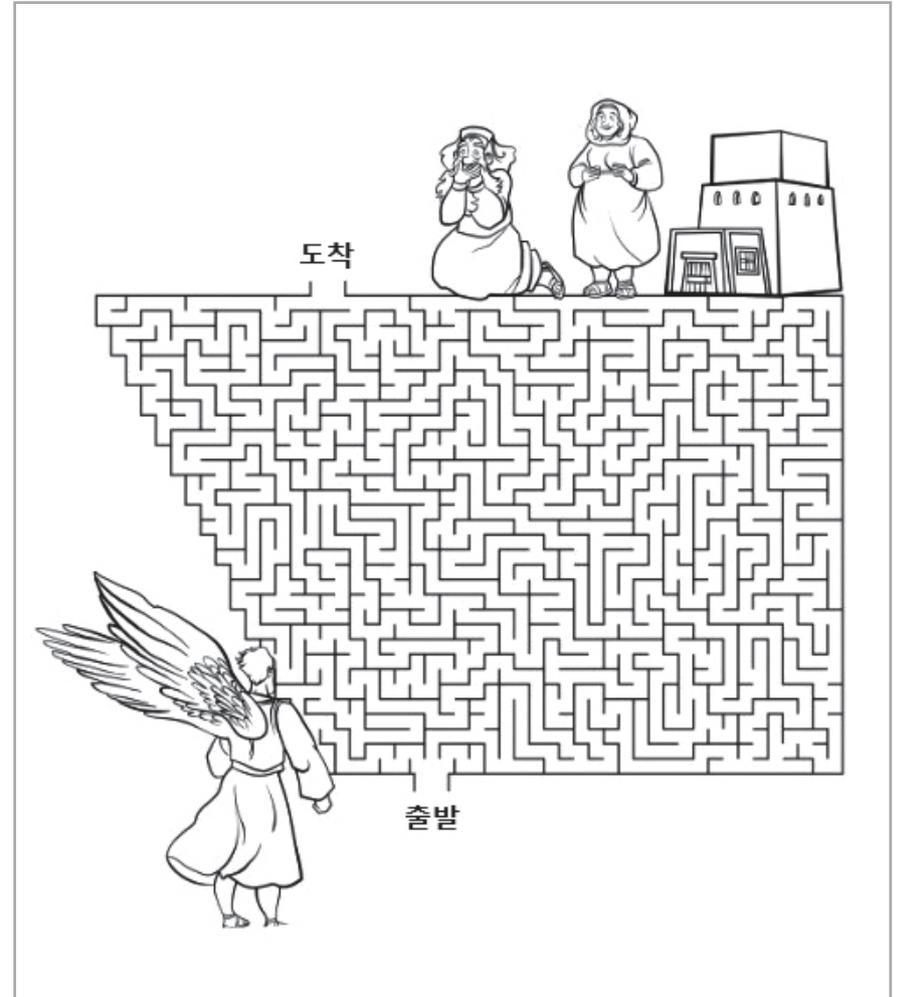
이름	
소속 (교구-목장/부서)	

주간	실천 (0로 표시)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짧은 간증과 소감]

세례요한의 출생을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1:5-25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음기 40장 9절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리스도 내림도 영적임 것을 사모하는 자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의 찬양할 것이라
내 혀가 주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환 음 세 천사가

큰 매를 들고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동해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표마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암아에

중만하매